

현대 한국불교의 연구경향에 대해서

권기종*

I

현대 한국불교의 학문적 접근은 1959년 백성욱 박사의 송수기념으로 간행된 『불교학논문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성욱 박사는 프랑스에 유학했고 이어서 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1925년 「佛敎純全哲學」이란 논문에 의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후 1951년에 동국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다. 8년 후인 1959년 그의 회갑을 맞이하여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 『불교학논문집』이 한국 불교학계에서는 최초로 발간된 본격적인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불교학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佛敎』라는 月刊紙 등을 통해서 단편적이고 본격적인 논문체제를 갖추지 못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을 뿐이었다. 이 『불교학논문집』에는 4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순수 불교학 연구에 해당되는 논문은 2-3편에 달하고 기타는 국문학사, 미술사, 또는 철학 영역에 해당되는 논문들이었다. 또 6년 후인 1965년에 출판된 조명기박사의 화갑논문집인 『불교사학논총』에는 31편의 논문이 수록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2편의 논문만이 순수 불교학 연구의 논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 불교학 연구의 시작은 불교사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의 학문적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두 분야의 회갑논문의 출간으로 한국불교학은 본격적으로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 연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3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현재는 연구원)가 『불교학보』라는 제명의 학술논문집을 출간함으로써 불교학계에 최초로 전문 연구논문집이 탄생하게

* 동국대 교수, 불교학

되었고, 이후 『불교학보』는 매년 1책씩을 발간하여 현재 32집이 발행되었으며 수록된 연구논문이 3백여 편에 달한다. 또 한국불교학회의 『한국불교학』은 제20집이 출간되어 140여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불교연구』가 12집이 출간되었고, 보조사상연구원의 『보조사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가산학보』, 백련불교문화재단의 『백련불교논집』 등 많은 논문집들이 출간되고 있으므로 그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특히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사상총서』 6책은 한국불교사상의 전반을 화엄사상, 천태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관음사상 등의 여섯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된 논문을 수록하였다.

II

이상의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학의 학문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원래 불교학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의 교설에 대한 학문적 이해 내지는 탐구를 가리킨다. 해방 이후 한국의 불교학계에서는 불타의 교설에 대한 탐구와 해석보다는 불교사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삼국·신라·고려시대의 불교사 연구가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불교사 연구에는 두 가지 점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첫째, 불교사를 불교라는 협소한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계 측 교단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당시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계의 한 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가지의 외부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건을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내적인 시각만으로 문제를 보려 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장경 판각의 완성은 민족의 위대한 저력이며,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불교계의 자랑이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일까? 이같은 큰 사업이 완성된 것은 오직 불교에 대한 신심의 결정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당시 수많은 양민들이 노역에 동원되어 충분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그 노동력

만을 착취당하지나 않았는지 하는 문제까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九山禪門의 분열이 단순한 禪風의 특성에 의한 다양한 불교발전인지, 아니면 편협된 아집이나 화합할 수 없는 독선 때문에 난립된 것인지도 문제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가진 연구가 필요하다. 무조건 그가 고승이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식의 긍정 일변도적인 평가에만 국한되고, 그의 부정적 측면이나 역기능적 사실에 대해서는 은폐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불교사가 이러한 방향으로만 연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는 마치 불교사가 정치사의 한 영역인 듯한 접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불교사의 흐름을 정치적 구도 속에서만 그 변수를 찾으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사상의 새로운 전개나 교단의 발전 및 변화 등 모든 것의 원인을 정치적 맥락에서만 찾으려고 하므로, 실제로 불교 내적인 창의적 의지나 방향성을 소외시키는 잘못된 불교사 이해를 초래케 하는 경우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불교사 연구는 이러한 양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불교사나 중국불교사의 연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불교학의 연구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전의 해석과 이해. 둘째, 교설에 의한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해석. 셋째, 인접 학문과의 공동 연구. 넷째, 원전을 통한 접근. 다섯째, 한국 불교학의 정립. 이렇게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불교학 연구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다.

먼저 경전의 해석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교 경전의 전반에 걸친 검증이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별히 중국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몇몇 경전들, 예를 들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이 중점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외의 경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경전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국 주석 학자들의 견해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이러던 경향이 근래에 와서는 일본 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

인 경전 해석과 이해를 위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원전 연구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불교학계에서도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의 원전 연구와 함께 티벳어 경전에 대해서도 그 연구가 착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한역 경전에만 의존하던 불교학 시대에서 한 단계 진보된 연구 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정해야 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세계와 인간에 대해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불교학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학과는 다르다. 불교학은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불교의 진리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학 연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인근 학문과의 연계 연구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같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설득력이나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학이나 심리학 또는 철학의 측면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독선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IV

불교는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졌으며, 또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같은 불교의 궁극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이며, 또 불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깨달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밝히는 데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불교학의 접근은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방법이나 절차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예를 들어 頓悟頓修나 頓悟漸修나 라는 논쟁이 그렇고, 禪이 우위나 教가 우위냐, 아니면 선교는 하나인가 하는 문제가 그렇다. 또 선 수행에 있어서도 과연 看話禪修行은 최선의 방법인가, 이 방법이 최선의 수행 방법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불교학 연구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예감되고 있는 인류사회의 제반 현실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